한전, 美國『PLMA 需要管理 대상』수상

- 세계 최고의 수요관리 성과 인정받아 해외 전력사로는 최초로 수상

■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는 3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부하관리협회(PLMA, Peak Load Management Alliance)가 전력피크억제와 부하율관리 등 수요관리 실적이 가장 우수한 전력회사에게 수여하는『PLMA 수요관리 대상(PLMA Demand Response Awards)』을 미국을 제외한 해외전력사로서는 최초로 수상했다.

- 이 날 낮 12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하야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PLMA 조엘 길버트(Joel Gilbert) 회장은 "한전이 300만kW에 달하는 전력피크를 감소시키고 76.2%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부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실적"이라고 선정사유를 밝혔음. 나아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가 탁월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한전의 2005년도 전력 수요관리 주요 성과는

- 11.3%의 공급 예비율을 유지하여 하계전력수급 안정 실현
- 76.2%의 세계 최고수준의 고부하율 달성
  - 미국(59.8%), 일본(61.2%), 프랑스(67.0%), 영국(64.6%)
- 297만kW 전력최대수요 저감을 통해 약 8,278억원의 국가적 설비투자비 절감(발전, 송변전, 배전 등 전력설비 투자비용 회피)
-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574,436MWh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여 약 2,854억원의 국가적 연료비용 절감
- 15종류의 다양한 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객만족을 실현 등이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지난해 에너지 수입에만 667억 달러나 지출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전력 수요관리는 곧바로 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 한전이 전력수요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한준호 사장이 2004년 취임한 직후. 한 사장은 취임 첫해를 국가적 에너지 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요관리 사업 강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해 왔음. 이에 따라 한전은 2004년 4월 '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수요관리 활성화 활동을 전개해왔다.

※ 電力 需要管理(Demand-Side Management)란?

전력원가 절감, 에너지자원 절약, 전력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전기사용 Pattern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회사의 제반활동으로 전력수요를 억제, 조성, 이동시킴으로써 수요를 평준화시키고,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을 도모.

※ 미국부하관리협회(PLMA, Peak Load Management Alliance)

1999년 결성된 전력 수요관리 전문단체로 미국 텍사스 주에 본부를 두고 있음. 에디슨전기협회(EEI) 및 미국전기연구소(EPRI) 등 주요 전력관련 기관,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 미국 내 대형전력사 등으로 구성된 PLMA는 세계 1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수요관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전력수요관리

의 중추적 기관.

※ PLMA 수요관리대상

전력피크 절감실적,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등 수요관리 실적이 우수한 단체·기관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로 수요관리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私營전력사(Investor Owned Utility Company), 市營전력사, 독립송전망사업자(ISO), 정부기관, 소비자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며,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 미국 대형전력사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일반주택 태양광, 전년보다 120만 싸게 설치한다

- 일반주택태양광 전년보다 137%증가한 2,156가구 보급 -
- 태양광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 전문기업을 선택 설치 -

산업자원부(정세균 장관)는 3월 20일 지난해(907가구)보다 137% 증가된 2,156가구(3kW기준) 규모의 일반주택용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확정하고, 가구당 평균 설치단가 2,82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비의 70%인 1,974만원을 국가가 지원(총 지원금액 426억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평균 설치단가의 30% 수준인 846만원만 부담하면 종전과 달리 지원신청 및 사업평가 절차 없이 정부가 심사·선정하여 공시한 전문기업을 직접선택하여 태양광을 설치한 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 되었다.

* 종전 : 신청(희망자 + 설치기업) → 사업평가 및 확정 → 설치
* 변경 : 제안(전문기업) → 시공능력 및 설치단가 심사 → 설치

시공능력심사와 설치단가 경쟁을 통해 전문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평균설치단가가 지난해(3kW기준 2,940만원) 보다 120만원이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지난해(882만원)보다 36만원이 인하된 846만원만 부담하고, 정부도 절감금액을 활용하여 당초계획(2,030호) 보다 126호를 추가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중심의 태양광 보급제도의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정부에 직접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이 '06. 3. 27.부터 서비스가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만 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태양광주택 희망자의 전문기업선택에 편의 제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의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전문기업의 정보를 게시하였으며, 전화상담(031-260-4676~7)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작단계 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 최소화

에너지기본법 제정·공포(2006.3.3, 법률 제7860호)에 따라 정부는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2007년 상반기중 확정키로 하였다.

동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02~' 15),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 '08),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03~ '12), 수소경제마스타 플랜('05~ '40) 등 수립되어 각 계획별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앞으로 동 장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출

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말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2030년간 2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 ·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연구단계 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 국민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2차례 수립되어 왔으나, 단기이며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 · 일 전력계통 신뢰도 심포지움 개최

- 고품질의 전기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움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한화콘도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 · 일 전력계통 신뢰도 심포지움에서는 한 · 일 양국의 전력계통 운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2003년 8월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대정전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기를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전력계통신뢰도센터가 주관하고 전력거래소와 일본의 전력계통이용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되며, 한?일 양국 정부 및 산 · 학 · 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움 첫날(3.16)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날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 마지막 날은 Technical tour로 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산자원부 장홍순 전력시장과장), 북미 광역정전 이후 한국의 전력계통 신뢰도 증대방안, 전력계통 운영측면의 신뢰도 평가 및 대책(전력거래소) 등을 발표했다.

일본측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 개편과정과 향후 추진방안, 전력시장 자유화와 신뢰도 유지방안, 일본 관서지역의 계통사고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 · 일 양국은 이번에 개최되는 심포지움을 통하여 상호 업무협조는 물론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기술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ㅇ 또한,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및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 심포지움을 매년 한 · 일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부발전, 양구 풍력단지사업 추진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이 강원도 양구군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소는 총 2만kW 규모로 2000kW급 1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중부발전은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08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양구 풍력발전소는 해발 1097m에 설치되며, 초속풍력이 8.2m로 경제성에서는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중부발전은 연간 이용률 36.5%를 기준으로 6395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부발전은 풍력단지가 건설되는 풍력발전소 지점과 한전 양구변전소를 잇는 154kV를 건설하고 배전선로 32km도 완공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의 핵심부품인 주기기는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로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중부발전은 하반기 중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발전의 양구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지난 해 정부와 발전사간에 체결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협약(RPA)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부발전, 신바람 리더십 워크샵 개최

한국서부발전(사장 김종신)은 3월 15~16일 양일간 서부발전혁신아카데미에서 4직급이상 직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신바람 리더십 워크샵' 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속성장 기업으로의 약진을 위한 리더십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더십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프로그램이 특징은 게임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한 이론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를 통한 성공적인 자기혁신을 유도하고, 일과 가정, 사회에 일조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하스누마시가 직접 강의하고 동시통역으로 실시됐는데, 하스누마 씨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을 폄하하는 'Discount' 는 버리고 자신이나 타인을 인정해주고 싶어하는 ' Stroke' 를 자기혁신을 통해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동서발전, 「2006 대한민국 BSC 포럼」 우수사례 발표

- BSC체계구축을 통한 경영혁신의 노력 대외적으로 인정 받아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2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06 대한민국 BSC 포럼」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지표)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웨슬리퀘스트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BSC에 대한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현황과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화식 경영혁신실장은 "동서발전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할 당시 가장 열악한 재무구조였다" 며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2004년에 발전회사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고「2005 대한민국 BSC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BSC와 6시그마를 통합 연계해 전략집중형 조직을 구현해 우수한 경영실적을 거뒀다" 며 "이 성과는 분사후 당기순이익 4년 연속 증가로 직결됐으며, 산업자원부 선정 '2005 공기업 최우수 윤리경영 기업' 으로 선정되는 밑거름이 됐다" 고 덧붙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BSC 성과는 경영진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전략실행력이 조화되어 이뤄진 성과" 라며 "앞으로 BSC를 통해 세계적인 초우량 발전회사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에 금융지원

- 기업은행과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신용대출 협약체결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중재)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한수원파워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2006년 3월 30일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姜權錫)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수원파워대출" 은 한수원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 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수원 협력중소기업에게

시중조달 금리보다 저리의 자금을 신용 대출하는 제도이다. KT와 포스코가 협력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한 사례가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는 한수원이 최초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자금조달임을 인식하고 이번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연구개발, 설비투자, 개발성공 제품의 사업화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협력중소 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은 금년도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한수원파워대출" 제도는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자금 지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 워크샵을 통한 기술교류 및 이해기반 확충으로 국내 발전소 건설사의 해외경쟁기반 강화

-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하동 7,8호기 아일랜드 턴키사업의 성공추진기반 구축 노력 -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상갑]은 지난 3월 16, 17일 양일간 전남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삼성물산(주) 관련직원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사업추진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하동7,8호기 건설사업은 과거의 분할발주방식이 국내 발전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턴키실적확보에 취약점으로 드러나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아일랜드 턴키방식으로 시도되었다.

하동화력 7,8호기는 500MW급 2기의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로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하동7,8호기 건설사업이 국내 발전소 건설사업 최초로 시도되는 아일랜드 턴키사업인 만큼 시행업체의 경험이 전혀 없어 건설 분야별, 회사별 간섭사항 해소와 명확한 역무구분을 설정하는데 있다.

워크샵에서 발주사인 南電은 아일랜드턴키사업관리 추진방침 및 현장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사인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및 삼성물산(주)은 턴키사업 수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건설사업 분야별로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Town Meeting을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분야별로 선정된 5~10개의 해결과제는 회사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구성된 혁신팀이 지속적인 Post Meeting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南電과 참여사는 이번 워크샵이 아일랜드 턴키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자간 공감대 형성과 상호 이해기반을 확대하였으며 국내 발전소건설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하동 7,8호기 건설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남동발전, UN「Global Compact」와 협약 체결

글로벌 파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한국남동발전(주)(사장 박희갑)은 글로벌 파워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국제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UN『Global Compact』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Global Compact 협약은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4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부패)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

총장이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현재 듀폰, 쉘, ABB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이번 Global Compact 가입은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려 글로벌 파워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동발전은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준수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전파, 확산함으로써 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갑 사장은 "Global Compact가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UN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지지하는 세계 유수의 일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인간존중, 자연애호, 사회공헌"을 기업이념으로 공익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렴하고 깨끗한 기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윤리헌장 제정, 윤리위원회 운영, 윤리경영인덱스(KEI) 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두산重, 캄보디아 관광소도시에 "사랑의 물" 나눈다

- **광주과기원과 함께 '물의 날' 맞아 씨엠립에 정수시설 무상지원**
- **'수인성 질병예방', 어린이들에 사랑의 손길**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관광 소도시 씨엠립(Siem Reap)市. 이곳은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캄보디아의 관광명소이다. 인구 10만여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4대 도시안에 들며, 앙코르와트에서 불과 10km 거리여서국제공항도 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늘어 전체 관광객의 20% 이상이 한국인이다.

캄보디아는 수도인 프놈펜과 씨엠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국가 전체가 수도시설이 없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먹거나 빗물을 받아 사용한다.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수시설은 차치하고 상수와 하수에 대한 개념조차 없기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으니 세균성 미생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자주 발생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장 허성관) 국제환경연구소(소장 김경웅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5세 미만 어린이 1,000명 당 130명이 매년 수인성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씨엠립市는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하천과 호수의 오염이 심해져 식수난은 더 심각해진 상태.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국제연합대학 (UNU)의 협력기관인 국제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여름 현지 수질조사를 통해 씨엠립 지역에 대한 식수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주는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있었지만,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물로는 부족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국제환경연구소는 정수시설 지원을 위해 해수담수화 부문에서 세계 1위 업체인 두산중공업(사장 이남두)에 지원을 요청했고, 두산중공업은 흔쾌히 정수시설 제작과 운송,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수시설은 하루 60톤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데, 이는 식수로만 사용할 경우 하루에 약 2,000명이사용할 수 양이다. 이 설비는 지난 19일 부산항을 출발, 캄보디아 시아노크빌항을 거쳐 이달말경 씨엠립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수시설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조재원 교수의 기술지원을 받아 설치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과 국제환경연구소는 "물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물을 나눌 수 있는 정수시설을 보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국가들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3년 연속 윤리경영 우수 공기업 선정

- '03년에 이어 3년 연속 공기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에서 3년 연속 「윤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윤리경영체제의 확산과 윤리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05년 12월 말부터 ' 06년 2월초 사이 정부부처의 46개 공기업과 매출액 기준 상위 국내 22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CEO, 작업장, 지배구조,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6개 부문의 윤리경영지표에 대한 평가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난방공사는 인력개발, 안전보건, 노사관계 등을 보여주는 작업장 부문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고객 부문,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을 평가하는 지역사회 부문의 3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높은 윤리경영 수준을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이어 3년 연속 공사가 윤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년 전사적으로 윤리경영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과 윤리경영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에너지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